

남아공 김영애 선교사 5, 6 월 선교 소식 올립니다.

계절이 반대인 남아공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의 장마 소식을 듣습니다. 별고 없이 평안하신지요? 이곳은 잦은 정전과 새 노트북 고장으로 선교지 소식이 조금 늦어져 송구한 마음으로 그간 소식 정리해 올립니다.

1. 일반적인 현재 상황

* 웨스턴 케이프 지역은 우기와 함께 겨울로 접어들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시기입니다.

* 전기 사정이 아침 점심 저녁 2 시간 30 분씩 정전되다가 이젠 4 시간 30 분씩 정전이 되곤 합니다.

* 여전히 오미크론이 존재하는데 사망자와 감염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는데 재감염과 확산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2. 구제 사역

코로나가 시발점이 되어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직의 고달픔과 가족을 잃은 슬픔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현지 성도님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진에 참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가의 고공 행진 가운데 거리로 내몰린 홈리스들이 늘어갑니다. **식량 나눔**을 계속하며 돌볼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진을 지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사 성경 나눔에 함께 하신 손길로 인하여 많은 성경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도소와 야간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들이

섬기는 교회에 코사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60 여권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ESV 영어 주석 성경은 동부교회의 후원으로 시작한 일인데 미국에 있는 Bob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참여하였고 Crossway 출판사까지 도움을 주면서 엄청난 양의 성경을 공급 받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입니다. 야간 신학교 신입생들과 현지 교회 사역자들과 직분 자들 그리고 교도소 성경공부 그룹도 나누고 있습니다.

담요 나눔도 지역을 넓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과 쓰레기통을 뒤져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코로나 기간 동안 식량 나눔을 비롯하여 수고한 현지 동역 자들과 가족을 잃은 사역자들 가정에도 공급하였습니다. 12장 정도 여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전적으로 헌금해 주신 후원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몬타구 지역 홈리스 분들에게 담요를 나누는 중 임산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담요와 임부를 위한 두꺼운 담요 2장을 소포로 부쳐 주고 음식을 제 때 먹을 수 있도록 슈퍼마켓 바우처를 보내었는데 아기용품을 먼저 구입한 임산부를 보며 거리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몬타구 지역을 섬기는 브렌다 선생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도움 길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위 왼쪽 사진은 말로만 듣던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로 거의 코가 함몰되고 손에는 발진과 아올러 굳어가는 홈리스 분의 모습입니다. 가볍고 따뜻한 담요를 드렸고 겨울동안 가끔 먹을 것을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요 식량 나눔은 매주 지속하지는 못하고 얼마 전 폭우가 그친 화요일 아침시간 각 동네마다 돌며 5kg 쌀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3번째 사진은 코사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개척 교회들 중 하나입니다. 아래 사진은 담요 나눔의 모습과 교도소로 보낼 성경들과 목상집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두렵고 힘겨운 시간을 현지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신 분들로 인하여 선교사가 새 힘을 얻으며 사역 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보내 주신 교회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선교지 필요한 지원을 하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남아공은 의약품은 불가능하지만 마스크는 받을 수 있어서 토요 세미나와 현지 사역자들 모임에 나누었고 오는 10월 3박 4일간 사역자 컨퍼런스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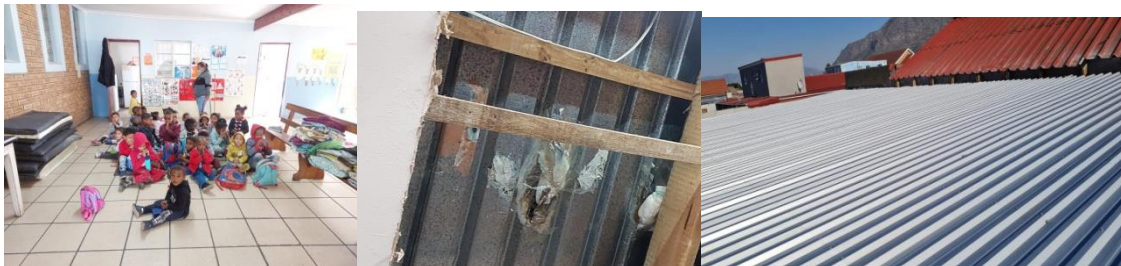
3. 유치원

웨스턴 케이프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지역이 라벤다 힐이라는 곳입니다. 널 교수님께서 이 지역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 본당 뒤편을 연결하여 유치원 교실을 만들었지만 전체 지붕이 녹슬고 군데군데 누수로 인하여 카페트를 깔지 못하고 타일 바닥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지붕 자체가 이번 우기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지붕 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 후원은 선교사가 담당하고 공사업체에 지불할 임금은 현지 교회가 감당하기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기에 서두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감사하게도 동부교회의 후원과 저희 가정이 모아 둔 헌금으로 지붕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지붕 공사를 마치지 며칠간 폭우가 내렸습니다. N2 고속도로 일부가 유실되고 다리가 무너졌으며 흑인 마을들은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짚은 정전으로 유치원마다 개스랜지와 개스통의 공급이 절실했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대표로 계신 JGM 을 통하여 구입하고 나눌 수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의 사진은 버닝 부시 유치원의 원아들과 지붕을 걷어내기 전 모습과 새 지붕을 시공한 후의 모습입니다.

4. 야간 신학교



위의 사진은 토요일 야간 신학 세미나 강의 중인 교수님 모습과 코로나 이후 토요일 세미나는 BISA 신학대학 강당에서 하고 있어 학생들의 점심을 샌드위치와 과일, 음료수들로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교회 개척을 한 사역자들에게 코사 성경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간 신학교는 지난주부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7월 5일 교수 회의로 모여 다음 학기를 수업을 의논하고 교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 가정 소식

진원이와 진현이 남아공 ID 가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비자문제로 받던 어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김영애 선교사는 알리지 기침과 어깨와 허리 통증이 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정리해 올립니다.

1. 현지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소서
2. 식량 나눔과 필요에 따라 도울 수 있는 구제 사역을 위해 선한 사마리안 인들이 행진이 지속되게 하소서

(후원: 하나은행 김영애 250 890000 10708)

3.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가정과 후원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소서

다음 서신 드릴 때 까지 강건하시기를 원하옵고 아프리카 한 모퉁이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김영애 선교사 올립니다.